

음성군 관광의향과 활성화 방안

김미옥*, 명유진**

*충북연구원

**한국관광공사(세종충북지사)

e-mail:miok96@cri.re.kr

Tourism Intention and Revitalization Plan in Eumseong-gun

Mi-Ok Kim*, You-Jin Myoung**

*Chungbuk Research Institute

**Korea Tourism Organization

요약

본 논문에서는 음성군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잠재적 관광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음성군을 관광한 경험은 34.4%로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관광만족도는 만족이상이 71.5%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응답자 중 41.0%가 향후 관광목적으로 방문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여 관광자원개발과 더불어 적극적인 관광홍보가 필요하다.

1. 연구배경

음성군은 산이 많아 역사 유적지인 산성이나, 사찰이 많이 존재하며 또한 넓은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게 저수지, 공원이 많이 생성되어 있으며 휴양림과 산림욕장도 발달해 있다. 이와 더불어 음성품 바축제, 음성고추축제 등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녀와 함께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타지역에 비해 관광지로서의 매력이 큰 지역은 아니다. 따라서 음성군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관광전략이 필요하다.

2. 연구방법

이를 위해 전국의 잠재적 관광객 500명을 대상으로 2021.06.21.~2021.06.25.동안 웹기반 설문조사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3. 연구내용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 51.2%, 여성 48.8%였으며 연령은 20대 19.6%, 30대 17.8%, 40대 21.4%, 50대 22.8%, 60대이상 18.4%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미혼은 31.2%, 기혼은 67.6%였다. 이중 음성군을 관광한 경험이

있다는 질문에 34.4%만이 관광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아직까지 음성군이 관광지로서의 인식이 크지 않으며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음성군에서 관광을 했던 경험자를 대상으로 무슨 활동을 하였는지 복수응답을 받은 결과 자연자원에 대한 탐방이 54.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식사 및 카페 탐방이 49.4%로 높았다. 역사문화지 탐방 외에 캠핑과 농촌체험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성지순례를 했다는 응답도 있어 음성군이 가진 다양한 특징의 관광자원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음성군 관광 시 체류시간은 1일 이상이 29.7%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2시간 이상~5시간 미만이 26.7%로 많아 관광으로 소득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 체류하면서 관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앞서 설문결과와 같이 음성군이 가진 종교유적지를 포함한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음성군을 관광목적으로 방문했을 때의 만족도는 만족이상이 71.5%로 높은 것으로 보였다. 이는 음성군에 대한 관광지로서의 인식은 낮지만 방문했을 때는 관광자원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는 의미로 관광지로서의 홍보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향후 관광을 목적으로 음성을 방문할 계획이 있다는 질문에 59.0%는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계획이 없다는 응답도 41.0%로 높은 비율이었다.

음성군을 방문하고 싶지 않은 이유로는 '방문하고 싶은 관광 시설이 없다'가 48.3%로 가장 높았다. 또한 '방문해서 할 만한

체험이 없다'도 32.2%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4. 시사점

음성군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지로서의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앞서 연구내용에서도 밝혔듯이 농업자원이 많은 지역적 특색을 활용하여 음성군만의 개성 있는 관광자원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는 한국관광공사의 연구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